

[5] 민속주(民俗酒)

우리 선민들은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주를 양조하여 즐겨 마셨다.

흔히 가양주(家釀酒)라 불리는 이 민속주는 1907년 7월에 조선총독부가 주세법(酒稅法)을 공포하고 가정에서 빚는 술을 전면 금지하였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소위 밀주(密酒)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민속주를 비밀리에 빚어 먹다가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벌금을 무는 일이 빈번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민속주는 그 종류가 100여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민속주는 탁주(濁酒), 청주(淸酒), 소주(燒酒) 등이었다. 이들 민속주를 빚는 재료는 누룩과 술밥, 그리고 맑은 물이었다.

누룩은 술을 빚는 데에 쓰는 발효제(醱酵劑)인데, 밀기울이나 찌콩 등에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든다. 이 누룩을 '주매(酒媒)'·'효모(酵母)'·'은국(銀麴)'·'국자(麴子)'·'국자'·'국얼'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술밥은 술을 담글 때에 쓰는 지에밥을 말한다. 지에밥이란 찹쌀이나 멥쌀을 물에 불려서 시루에 찐 고두밥을 말하는데 약밥이나 인절미를 만들거나 술밑으로 쓰인다.

(1) 탁주(濁酒)

'막걸리'라고 하는 이 탁주는 주로 찹쌀, 멥쌀, 보리쌀, 밀, 감자등을 찐 뒤에 수분을 약간 건조시켜 누룩과 물을 적당히 넣어서 일정한 온도와 기간 동안 발효한 것을 청주(淸酒)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짜낸 술이다. 빛깔이 뜨물처럼 희고 탁하며 맛이 텁텁하고 알코올 성분이 약하다. 농촌에서 작업할 때 많이 마시기 때문에 농주(農酒)라고 하며, 빛깔이 탁하기 때문에 탁주(濁酒)라고 하며 청주를 떠내지 않은 채로 마구 걸러낸 술이기 때문에 막걸리라 한다. 그리고 '탁료'라고도 한다.

(2) 청주(淸酒)

청주는 술빛이 노르스름하고 맑기 때문에 '맑은술'이라고도 하며 또 '약주(藥酒)'라고도 한다. 양조 방법은 탁주와 같은데, 다만 술거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청주는 발효가 되면 술독 중심부에 '용수'를 박아 두고 맑은 술이 괴는 대로 떠내어 술통이나 장군에 담아 밀봉해 둔다.

용수는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고 기다란 원뿔 비슷하게 엮어 만든 기구인데, 술이나 장을 거르는 데에 쓰인다. '추자(子)'라고도 한다.

장군이란 물, 술, 간장 등의 액체를 담아 옮기는 그릇의 일종인데 오지를 만들기도 하고 나뭇조각으로 통을 메듯이 짜서 만들기도 하였다.

(3) 소주 (燒酒)

쌀이나 수수 또는 그밖의 잡곡을 찌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켜 증류(蒸溜)한 무색 투명한 술을 소주라고 하는데 알코올 성분이 20~30%이다. 발효된 것을 증류는 작업을 '소주 내리기'라고 하는데 이때에 사용하는 기구가 '소주고리'이다.

소주고리는 구리나 오지로 만든 그릇으로서 소주를 고는 데에 쓰인다. 술에다 발효된 술과 술지거미를 넣고 술 위에 소주고리를 맞추어 올려 놓은 다음 이음새를 밀가루 반죽한 것으로 감이 새지 않게 밀봉한다. 소주 고리 위에 냉수를 붓고 나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이때에 가열한 술에서 알코올이 증발하여 소주고리의 냉각된 천정에서 증류되어 소주가 가는 다란 구멍으로 흘러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그릇에 받거나 병에 받아서 밀봉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4) 약주(藥酒)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약재를 넣어 빚은 술을 약주라 한다.

(5) 과일주(果實酒)

소주에다 과일을 넣거나 과일만으로 빚은 술을 말한다.

[6] 차(茶)

우리 한국차(韓國茶)의 본산은 지리산이라고 한다. 신라시대에 이미 지리산에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그 차가 야생화(野生化)하여 화엄사(華嚴寺)와 쌍계사(雙溪寺)에서 채취해다가 차를 다리는 다습(茶習)이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지리산에서 채취한 작설차(雀舌茶)는 맛과 향이 뛰어났다.

조선 왕조시대에는 산사(山寺)에서 승려(僧侶)들이나, 또는 산촌에 유배되어 가 있던 전직 고관들이 야생하는 차를 캐어 다탕기(茶湯器)에 다려 마셨으며 궁중에서는 지방에서 진상(進上)해 올린 차를 애용하였다.

이러한 다습(茶習)은 갑오경장 이후에 민간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서양 선교사와 외국 상인들에 의하여 커피차가 이 땅에 들어왔다. 러시아 공사(公使) 웨베르는 미소책(微笑策)의 하나로 고종 황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차를 어용(御用)으로 황실에 공급하였으며 친로 행위(親露行爲)로 유배형이 내려진 김 홍륙(金鴻陸)은 하수인 공홍진(孔洪鎭)을 사주하여 주선직(主膳職)으로 있던 김종화(金鍾和)를 매수하여 고종 황제의 만수절(萬壽節)에 독아편(毒阿片)을 커피에 섞어 올린 다독사건(茶毒事件)도 있었다.

작설차(雀舌茶), 설록차(雪錄茶),인삼차(人蔘茶), 당귀차(當歸茶), 구기자차(枸杞子茶), 두충차(杜 茶), 울무차, 생강차, 영지차, 유자차 등 우리의 국산차와 더불어 커피차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기호 식품이 되었다.

[7] 담 배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상륙했을 때, 그곳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들로부터 '토바코스(Tobacos)'라 불리는 담배를 선물로 받은 콜럼버스는 귀국하여 국왕과 고급 관리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바쳤다.

이로부터 유럽 전지역에 퍼진 담배는 남미로 전파되고 마침내 비율빈에까지 전파되어 여기서 재배한 담배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지 약 100년이 지난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때에 왜군들이 담배를 가지고 왔다. 7년간의 왜란이 끝나고 다시 국교가 열리면서 일본에서 담배씨를 수입하여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담파고(淡婆姑), 남령초(南靈草), 남초(南草), 담화귀(踏花鬼), 반흔초(反魂草), 정녀흔(貞女魂), 상사초(想思草), 천금약(天金藥), 해우초(解憂草)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웠고, 비율빈의 수도(首都)인 여송(루송)에서 수입된 것이라 하여 여송연(呂宋煙)이라고도 하였다.

개화기 이전의 고관들은 길이가 1m이상 되는 긴 장죽(長竹) 담뱃대를 사용하였고 이들은 담뱃불을 부싷돌로 쳐서 붙여 올리는 연노(煙奴)라 부르는 어린 하인을 두었다. 그리고 이 담배는 어른이나 상관 앞에서는 피울 수 없도록 규제 되었으며 상민이나 처녀들은 장죽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담뱃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연노(煙奴)를 두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흥선대원군은 벼슬아치의 품계(品階)에 따라서 담뱃대의 길이를 3척(약 90cm) 이내로 줄이도록 명령하였다.

담배는 열대와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마주 땅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나라 평안도 지방에서 비싼 값으로 담배를 밀수해다가 피웠으며 이로 인하여 서북 지방(평안도)에서는 담배 밀수출로 부자가 된 '담바 부자'가 많았다고 한다.

병자호란(丙子胡亂)직후의 일이다. 청(淸)나라 군사가 철수할 때에 우리 조선 백성 10만여 명을 납치해 가지고 만주에 돌아가 인신 매매 시장에 끌고가 노비(奴婢)로 1인당 100량씩 팔아 넘겼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 국내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값싼 조선 담배를 가득히 짊어지고 마주로 달려가 조선의 담배값보다 20배나 비싼 값으로 팔아서 포로로 납치되어 노예 시장에 끌려 나온 가족이나 친척을 100량 이상이나 되는 거금을 치르고 속환(贖還)시키는 일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 담배 경기를 탄 서북 지방의 조선 백성들은 담배를 청국에 밀수하여 그 나라의 금과 은을 사들여 부자가 되었으며 이것을 알게 된 청(淸)나라 태종(太宗)은 만주에 금연령(禁煙令)을 내리고 조선의 담배 밀수를 엄금하였다.

한·일 합방이 되고 10여년이 지난 1920년에 조선 총독 재등실(齋藤實)이 담배 전매령(轉賣令)을 공포하여, 일제가 담배의 전매 사업으로 우리 백성의 땀지돈을 모두 거둬 들였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지 400여년이 된 지금 전세계적으로 금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80년대부터 담배의 해독을 깨닫고 금연 인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